유정길의 불자라면 이렇게 ⑨ 물은 위에서 아래로만 흐를까

▶한줄 요약
역대급 태풍이라고 평가된 힌남노와 난마돌이 한국과 일본을 강타했다. 이는 이상기후로 벌어진 일이다. 우리는 '모든 것은 순환한다'는 연기론적 진리를 간과하고 산다.



인간 탐욕이 초래한 역대급 태풍들



미국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촬영된 태풍 힌남노. 사진 제공=NASA 홈페이지

태풍 힌남노 · 난마돌, 韓日 강타
온난화로 장마 보단 '우기' 가까워
'모든 것은 순환한다' 진리 간과
무한경쟁 악순환, 결국 과보받아

역대급 태풍 힌남노 · 난마돌

최근 우리가 겪는 모든 기상현상들은 '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과거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것이라는 뜻이다. 지난 8월 28일 발생, 9월 6일에 한국에 상륙해 포항과 경주를 비롯한 남부지방을 초토화시킨 태풍 '힌남노'는 올해 11번째의 슈퍼 태풍으로 불린다. 공포스러운 위력 때문에 제주도의 피해가 컸지만 특히 포항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 9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으며 1000가구 149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시설물 피해 8000곳, 차량침수만도 8500대라고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포항제철소가 창립 이후 50년만에 최초로 전면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며 약 1조 7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루사와 매미, 에위니아에 이은 역대 4위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어서 제14호 태풍인 '난마돌'이 9월 13일부터 올라왔다. 19일에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꺾어져 한국으로 오지 않고 일본열도를 따라 올라갔다. 난마돌 역시 '강'에 속하는 태풍으로 일본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비와 바람'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사실 올해 여름에도 폭염이 진행되었지만 놀랍게도 장마기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장마 이후에 폭우가 오랫동안 쏟아졌다. 이제 장마란 말보다 ' 우기 '라는 말로 표현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예측불가능한 이상기온은 온난화와 기후위기가 원인이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오늘의 글은 지구온난화와 태풍과 기상이변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단순히 서술하기보다 기상이변의 발생 이유와 관련하여 그것이 불교의 가르침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만 흐를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말한다. 그 '위'는 계곡상류이고 깊은 산속의 샘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그 깊은 계곡물이 '아래'로 흘러내려 내를 이루고 강에 이르러 바다로 간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렇게 흘러가버린 물은 되돌릴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 짧은 기간으로 한정하면 맞다. 그리고 구간을 구분하여 위와 아래로 나누어 생각하면 맞는 말이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절대 옳다면 산꼭대기에는 거대한 물탱크 같은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당연히 그런 물탱크는 없다.

그러나 다른 물탱크가 있다. 수많은 나무의 뿌리와 그 뿌리가 잡고 있는 흙, 풀 등이 물을 머금고, 그 흙이 물을 모아두어 지하수로 저장해왔다. 이렇게 머금고 있는 나무와 흙속의 물과 지하수가 밖으로 나와 샘물이 되고 계곡의 물로 모여 내를 이루고 강을 이뤘다. 이렇게 보면 산은 나무와 흙, 돌로 된 덩어리가 아니라 사실은 거대한 물탱크이자 저수지라고 해도 틀린 말이이 아닐 것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산과 계곡의 물은 결국 비가 내려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구름이다. 결국 구름이 있어야 비가 만들어 질 수 있다. 그리고 더 깊이 사색을 하면 계곡의 물과 냇물의 시원(始原)이 구름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끝일까? 물의 시작은 구름이고 종착역은 바다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자, 그 구름의 물방울은 어디에서 오는가? 계곡이나 강물, 바닷물이 증발해서 혹은 엄청난 양의 땅의 수분 등이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간 것이다.

또한 식물의 뿌리는 땅의 물을 물관을 통해 빨아들여 잎의 기공을 통해 그 물을 수증기형태로 밖으로 내보낸다. 증산작용이다. 이렇게 잎의 작용으로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숲이나 산림은 어쩌면 하늘로 올라가는 거대한 물기둥을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오 이후 2시경 산을 바라보면 뿌옇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나무들이 빨아들인 물을 증산작용을 통해 하늘로 올려보내는 물기둥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바다와 강, 계곡의 물이 증발해 구름이 되고 비로 내리고 계곡의 물이 되고 장강을 이루어 바다가 되고 다시 증발하여 구름이 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물의 순환이다.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 자연이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도 한다. 전체로 보면, 오랜 시간을 두고 보면 위 아래는 없다. 직선적으로 가버리는 것은 없다. 다시 돌아오는 순환이다. 순환하는 세계에서는 결국 되돌아오고 내게 돌아온다.

생활 속의 직선적 시간관

직선적 시간관은 시간이 직선으로 흐른다는 세계관이다. 그래서 직선상에 현재를 시점으로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다. 어제는 뒤라고 생각하고 내일은 앞이라고 생각한다. 비가역적이다. 되돌릴 수 없다고 보며 모든 것을 그 직선상에 나열하고 서열화한다.

앞(先)이 있고 뒤(後)가 있다. 앞선 나라를 선진국, 뒷선 나라를 후진국이라고 한다. 앞선 것은 좋은 것이며 뒷선 것은 후지고 나쁜 것이라는 위계적 관념을 갖게 한다.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좋은 것, 이름하여 진보(進步)라고 한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 단순히 앞이 아니라 위로 높이 나아가는 일을 무한히 하려고 한다.

오늘날 산업사회는 직선적으로 위로, 그것도 가속적으로 무한성장을 지향한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나라가 선진국을 따라가려고 한다. 그러나 무한성장주의는 곧 무한채굴주의이다. 그것이 바로 위기의 원인이 된 것이다. 순환적 시간관은 하나의 행위가 곧 복잡한 연관과 상호의존 속에서 나에게 돌아오고 언젠가 결국 영향을 내가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직선적 시간관에서 나의 행위는 그 순간이 지나가면 끝이라고 생각한다. 강물처럼 흘러가버리면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한다. '지나가면 그만', '내 손을 떠나면 상관없다', '나와 관계없다'는 세계관, 이것이 직선의 사고이다. 하지만, 순환의 사고는 모든 것이 '나와 관계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연기적 세계관이다.

비유해보자면, 재래식 사찰의 해우소에서 오줌과 똥은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채소의 소중한 거름이다. 오줌과 똥을 다른 집에 누고 오면 어른들에게 야단을 맞을 정도로 귀하게 여겼다. 똥이 채소가 되고 그것이 다시 똥이 되는 자연 순환 속의 흐름이다.

그러나 오늘날 변기에서 누는 똥은 물만 내리면 나와 관계없이 직선적으로 흘러 어디론가 가버린다. 직선이다. 실제 '유한한 지구', '하나뿐인 지구'를 무한한 것으로 착각해 무한생산, 무한소비, 무한폐기를 해온 것이 오늘날 경제와 정치의 근본이 되었다.

쓰레기를 버리면 결국 멀어져 "나와 관계없게 된다"는 생각으로 인해 함부로 버리고 쓰게 된다. 직선적인 시간관은 자원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자원무한주의 세계관이다. 그리고 내 손을 떠나면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세계관이다. 이러한 직선적 시간관은 필연적으로 '시작'과 '끝'을 고려하며 '태초'와 '종말'로 이어지는 서구 기독교의 시간관에서 비롯되었다고 비판을 받는다.

더 빨리, 먼저, 높이, 많이

또한 직선은 속도를 의미한다. 한 점을 목표로 빨리 도착하려 한다. 경쟁이다. 그 경쟁을 통해 남보다 빨라야 하며 그래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세상은 이기고 지는 전투의 세계이며 승리에 집착하는 세계관이다. 직선은 목표지향적 효율을 강조한다. 과정은 생략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또한 관계도 무시된다. 그래서 사람이 다치고 자연이 훼손돼도 문제를 삼지 않는다. '더 빨리, 더 먼저, 더 높이, 더 많이'의 세계는 바로 직선적 세계관이 오랫동안 인류에게 훈습되어 만들어진 문화이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문제는 생산력의 수준을 줄이는 것이며, 청빈과 검약, 가난이 사회화되는 것을 궁극의 지향이라고 말할 때 가장 크게 부딪치는 문제가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라는 말이냐"이다. 그리고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대안의 대부분은 현재의 소비수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산업사회의 부산물인 오염을 최소화하고 싶어 하는 방법을 찾는다. 거의 과학기술에 의존하거나 정치인들의 정책으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현재 아무리 환경오염이 심각해도 경제성장을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진보' 또한 이 같은 직선적 패러다임에 갖혀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직선으로 보면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다. 그러나 모두가 연기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윤회의 관점, 순환의 관점에서 보면 전체 생명계 내에서 한 요소들이 모여져 개체생명이 되고, 이것이 다시 흩어져 더 큰 생명계로 들어가 모여 다른 모양의 생명이 만들어지고 흩어지고를 반복할 뿐이다. 생명의 시작과 끝은 없는 것이다. 짧게 잘라서 볼 때, 시냇물은 위와 아래가 있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지만 물의 흐름 전체를 보면 위와 아래는 없으며 순환만 있을 뿐이다.

뜨거운 것은 위로, 찬 것은 아래로

남극과 북극이 녹으니 지구의 하얀 부분이 줄어들어 태양광을 반사하기보다 흡수하는 부분이 많아져 더욱 지구온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바다표면의 온도가 올라간다. 뜨거운 바닷물은 위로,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이 강해지고 이전까지 일정하게 반복되던 바닷물의 흐름의 속도가 바뀌고, 난류와 한류의 대류의 흐름에 교란이 일어난다.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면 바다 위의 대기의 온도가 상승한다. 그러면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내려온다. 정상적으로 움직이던 고기압과 저기압이 혼선이 일어난다. 따뜻한 공기나 찬 공기가 지형과 지역의 기온에 따라 다시 교란이 일어난다. 공기가 뒤죽박죽이 되고, 바다물이 뒤섞인다. 엘리뇨와 라니냐가 빈번하게 된다.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이상기온이 수시로 반복되는 이유이다.

세계는 이렇게 촘촘이 연결된 거대한 생명이며 순환하고 있건만, 우리는 그저 '지금'만 보고, '여기'만 보고, '나'만 보고 있는 어리석음으로 이 위기의 과보를 받고 있는 것이다.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장〉

